

**동아시아연구원(EAI)과 言論NPO가
「제7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엠바고] 본 자료에 대한 인용은 라디오·텔레비전·통신사·웹 등에서는 2019년 6월 12일(수) 15:30 이후, 신문의 경우 6월 13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 제7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한국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과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 (대표: 쿠도 야스시)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를 2019년 5~6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본 조사는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조사의 주요 결과는 6월 12일 오후 2시 30분 일본 도쿄 HSB 뎡포즈(Teppozu) 빌딩 1층 회의실에서 50여명의 국내외 외신기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본 기자회견의 발표 자료는 (1) 요약발표문과, (2) 주요 데이터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외신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도쿄 HSB 뎡포즈(Teppozu) 빌딩 1층 회의실
- 발표: 손열(동아시아연구원), 쿠도 야스시(겐론NPO)

본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이후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가 공동으로 6월 21~22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7회 한일미래대화'에 보고되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7회 한일미래대화를 통해 양국의 민간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악화되고 있는 양국 국민 인식 차이를 좁히고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제7회 한일미래대화' 개요에 대한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제7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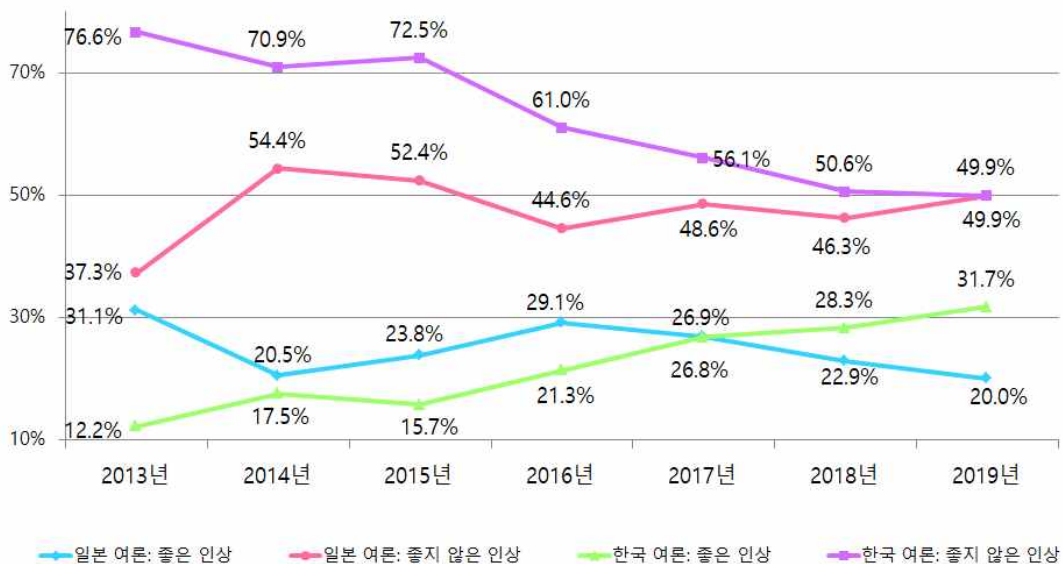
1. 반대로 가는 한국과 일본

-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
 - [한국] 2013년 12.2% → 2019년 31.7%, [일본] 2013년 31.1% → 2019년 20.0%
- 한일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일 호감도는 증가. 반일감정 누그러지는 추세

일본에 대한 인상을 '좋다', '대체로 좋다'로 응답한 한국인은 26.8%(2017년)→28.3%(2018년)에 이어 올해 31.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일본의 이미지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다'('대체로 좋다' 포함)가 2018년 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7년 간의 추이를 보면, 2013년 일본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인식은 12.2%에서 2019년 31.7%로 증가한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2013년 31.1%에서 2019년 20.0%로 하락했다.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2013년 76.6%에서 2019년 49.9%로 대폭 감소한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 인식은 2013년 37.3%에서 2019년 49.9%로 좀처럼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상대국에 대한 인상 (2013-2019)



2.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민성, 문화, 역사문제

- 상대국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국민성, 생활수준과 문화
 - [한국]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 때문에' 69.7% vs [일본] '한국의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 때문에' 52.5%
- 상대국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가지게 되는 이유로서 한국의 경우는 역사인식, 일본의 경우 역사인식 자체라기보다는, 이를 다루는 한국의 태도와 행동에 반감(反感)
 - [한국] '독도 문제 때문에' 57.5% vs [일본] '역사 문제 등으로 일본을 계속 비판해서' 52.1%

한국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친절하고 성실한 일본의 국민성 때문에 (69.7%)',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이어서 (60.3%)'로 일본의 국민성과 생활수준이 긍정적 인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한국의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 때문에 (52.5%)',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49.5%)'에 가장 많이 응답하며 한국의 문화가 호감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반대로, 일본의 문화를 이유로 꼽은 한국인 응답자는 24.7%, 한국의 국민성(9.5%)과 생활수준(9.0%)을 선택한 일본인 응답자는 18.5%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2] 상대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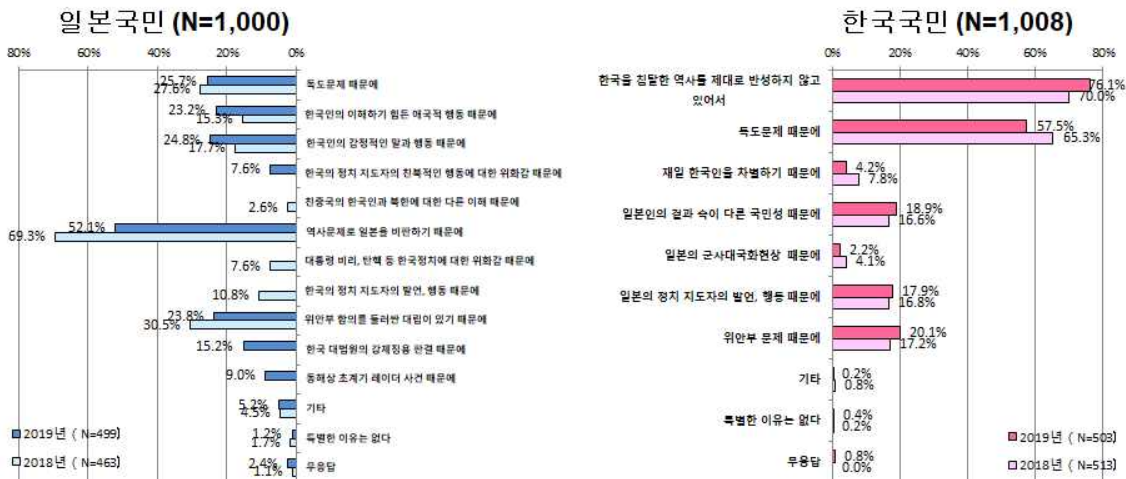
하지만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한일 모두 역사 문제였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은 '한국을 침탈한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서(76.1%)', '독도 문제 때문에(57.5%)'가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일본의 경우, '역사 문제 등으로 일본을 계속 비판해

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2018년 69.3%에서 2019년 52.1%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역사문제가 양국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큰 부분이라는 여론이 일치했다.

이는 일본 국민이 역사 해석에 관한 한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문제를 다루는 한국인의 행동방식에 위화감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감정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24.8%)', '한국인의 이해하기 힘든 애국적 행동 때문에 (23.2%)' 등을 꼽는 것도 역사문제를 다루는 태도와 행동에 반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일관계의 현안과 연관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때문에(15.2%)', '동해상 초계기 레이더 사건 때문에 (9.0%)', '한국인의 정치 지도자의 친북적인 행동에 대한 위화감 때문에(7.6%)와 같은 선택지에는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이듯이 일본 국민에게 있어 지난 한 해 발생한 한일관계 현안이 부정적 호감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상대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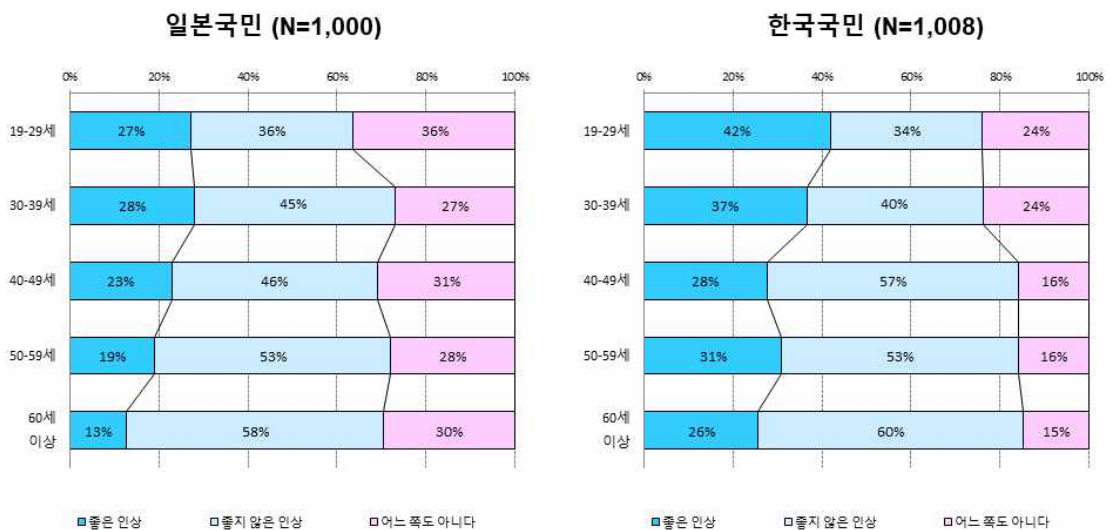


3. 세대별 호감도 뚜렷한 차이보여: 한국인의 대일 호감도를 견인하는 세대는 20대

한일 양국 모두 연령에 따른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젊은 연령층이 장/노년층에 비해 일본에 대한 압도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여주었다. '좋은 인상'과 '대체로 좋은 인상'을 합친 긍정적인 호감도는 19-29세에서 42%, 30-39세에서 37%를 보여준 반면, 50-59세 31%, 60세 이상 26%로 연령 간 호감도에서 큰 격차가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19-29세에서 27%, 30-39세에서 28%인 반면, 50-59세 1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여 60세 이상 층에서는 13%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일 양국 모두 19-39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국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여러 사건들(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초계기 레이더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대일 호감도 상승을 견인한 세대는 20대이다. 20대가 특별히 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일본에 대한 스테레오타이프(편견)이 비교적 적은 탓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여행을 많이 하는 세대이어서 일본에 대한 직접체험을 하고 있으며, 또한 TV나 신문매체 등 기존 미디어 보다는 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의한 간접체험을 하고 있어 한국 기성세대와 미디어에 의해 재생산되어 온 일본관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작년의 경우 일본방문객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하였을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직접 체험하였는데, 일본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호감도는 48.5%, 경험이 없는 경우 호감도는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의 호감도 상승은 여행경험의 상승과 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림 4] 한국과 일본의 연령에 따른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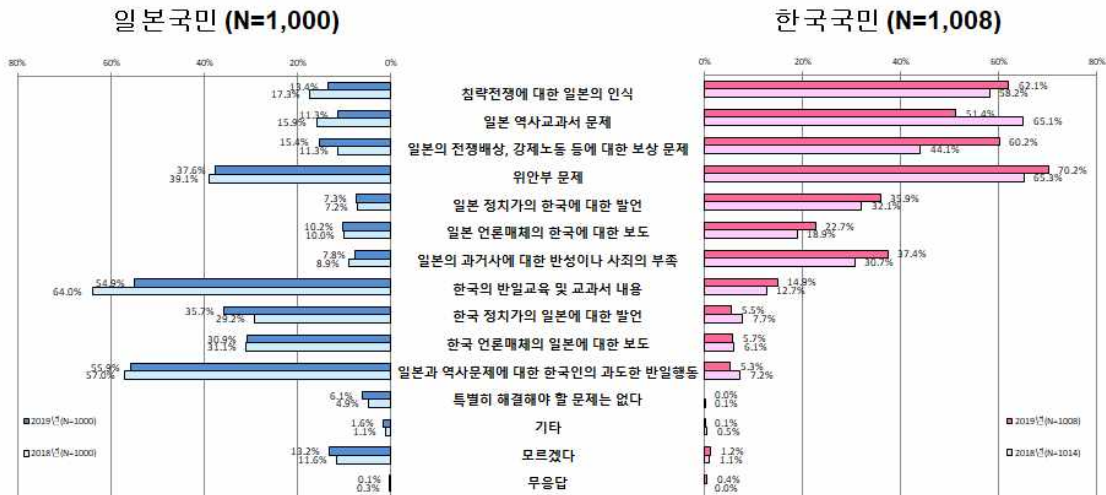


4. 호감도와 역사문제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 나타나

- 개선되는 호감도와 관계없이 양국간 역사논란은 변함이 없어
 - 역사문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및 해상초계기 레이더 사건에 대한 양국 간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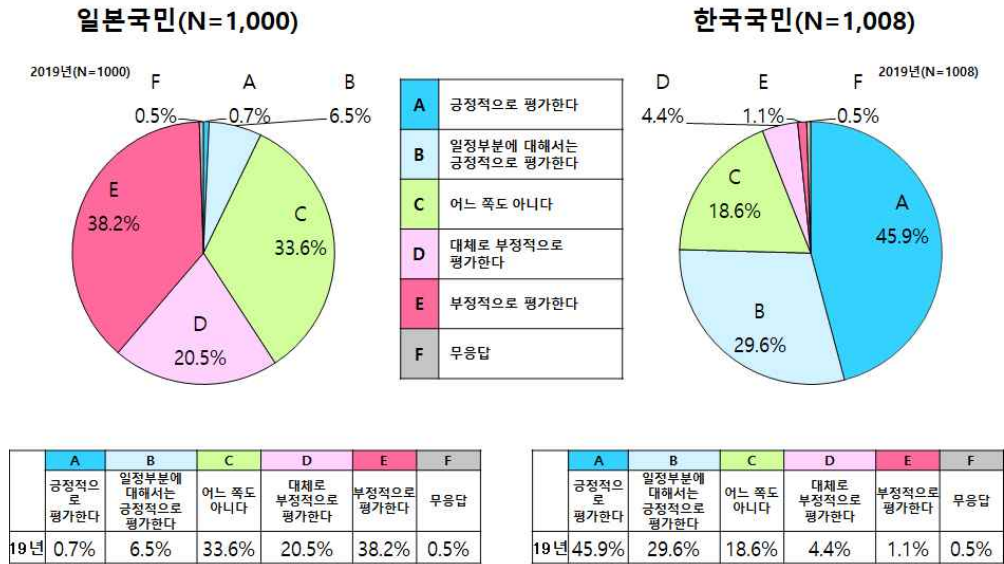
일본에 대한 한국민의 호감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에 비해, 역사문제 관련 정책에 대한 양국민의 평가는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위안부 문제(70.2%),' '침략전쟁에 대한 일본의 인식(62.1%),' '일본의 전쟁배상, 강제노동 등에 대한 배상 문제(60.2%)'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 해 동안 한일관계를 달구었던 위안부 합의 논란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 판결 등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도 작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해결이 필요한 역사문제에 있어 일본인 응답자 55.9%가 '일본과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과도한 반일행동'을 손꼽았으며, 54.9%가 '한국의 반일교육 및 교과서 내용', 37.6%가 '위안부 문제'라고 답했다.

[그림 5] 역사 문제 해결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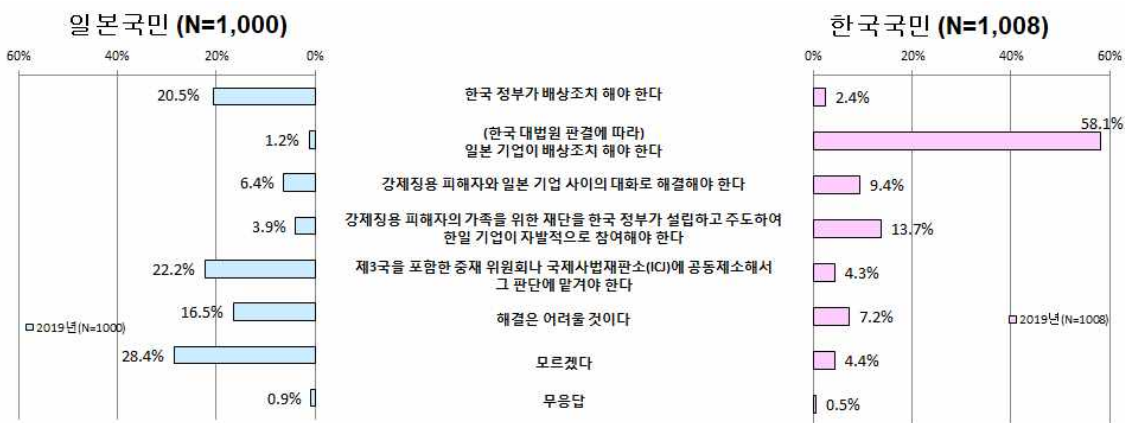
현안에 대한 양국민의 극명한 대립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및 해상초계기 레이더 사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양국은 상이한 평가를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45.9%)'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29.6%)'에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총 77.5%였고,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4.4%)'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1.1%)'에 답한 응답자는 총 5.5%로 매우 낮았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일본인 응답자는 총 58.7%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본인 응답자는 총 7.2%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6]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평가



대법원 판결로 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한국인과 일본인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이 배상조치 해야 한다(58.1%)'고 답한 반면, 해당 판결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한 일본 응답자의 비율이 28.4%로 가장 높았다. 일본의 경우, '모르겠다'에 이어 '제3국을 포함한 중재 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22.2%, 그리고 '한국 정부가 배상조치 해야 한다'가 20.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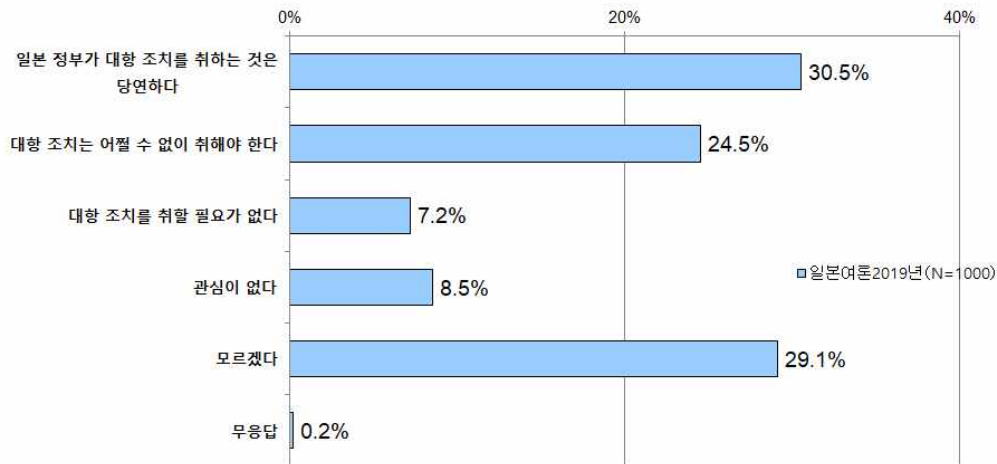
[그림 7] 대법원의 판결로 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일본 측 여론조사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항 조치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진행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제품 관세인상을 포함한 일본정부의 대항 조치에 대해서 55%의 일본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0.5%가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

하다,' 24.5%가 '대항 조치는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9.1%이었다.

[그림 8]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항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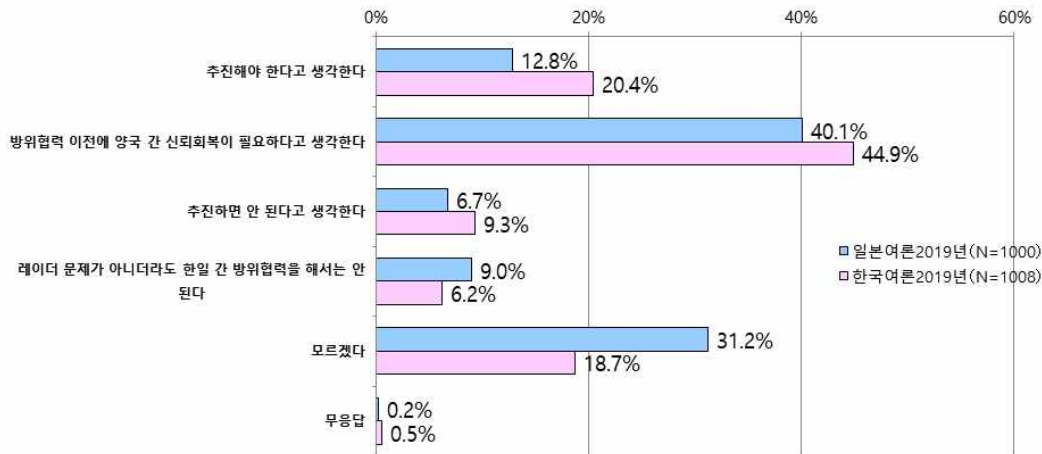
레이더 사건에 대한 양국민의 평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일본 정부가 옳다고 생각한 일본인 응답자는 62.9%, 한국 정부가 옳다고 평가한 한국인 응답자는 61.9%로 자국 정부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한국 정부가 옳다고 평가한 일본인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일본 정부가 옳다고 생각한 한국인 응답자는 3.1%에 불과했다. '레이더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라고 답한 한국과 일본 응답자는 각각 26.7%와 31.7%였다.

[그림 9] 해상초계기 레이더 사건에 대한 입장



레이더 사건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속에서 한일 방위협력 추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매우 유사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방위협력 이전에 양국 간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각각 44.9%와 40.1%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인 응답자 중 20.4%는 방위협력을 추진해야한다고 평가했는데, 이 비율은 추진하면 안 된다고 평가한 응답자 9.3%에 비해 두 배 이상 컸다.

[그림 10] 레이더 사건 이후 한일 방위협력 추진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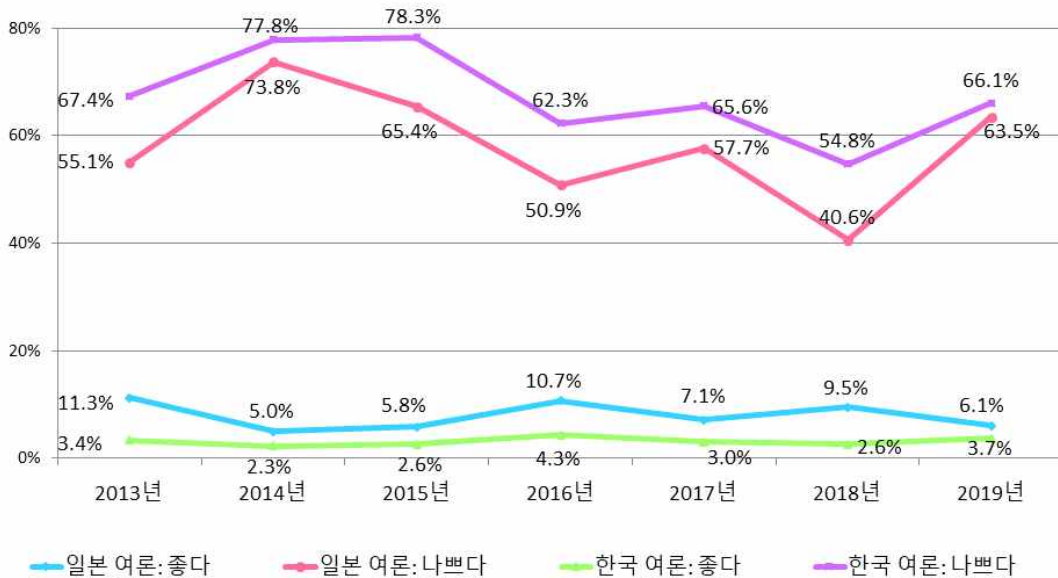


5. 악화된 한일관계, 양국 모두 개선의지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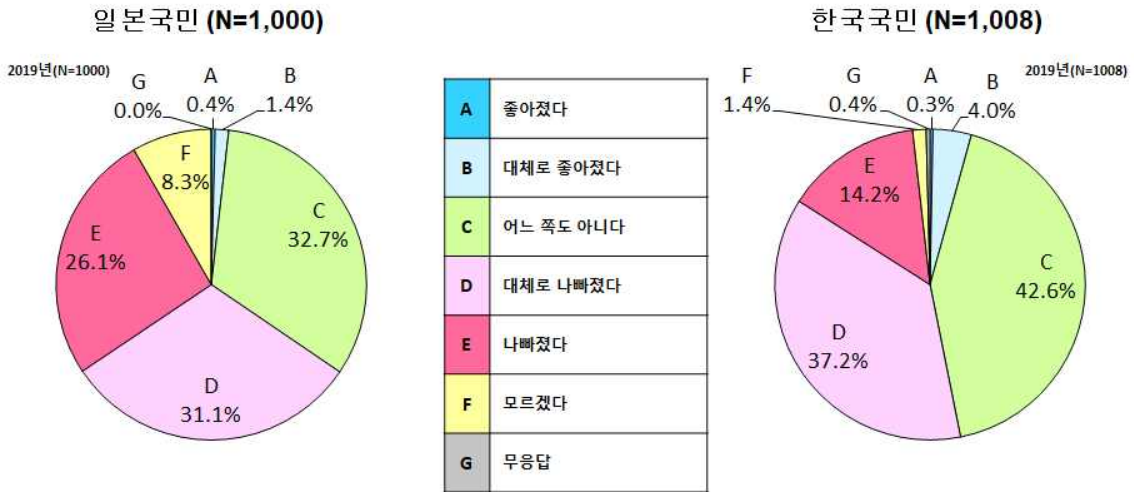
-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서 양국 모두 '나쁘다'는 의견 지배적
-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식 양국 모두 높아

한일관계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2018년 2.6%에서 2019년 3.7%, 일본인은 2018년 9.5%에서 2019년 6.1%로, '나쁘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2018년 54.8%에서 2019년 66.1%, 일본인은 2018년 40.6%에서 2019년 63.5%로 더욱더 악화된 한일관계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의 4.3%, 일본인의 1.8%만이 지난 1년 간 한일관계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반면, 인상이 '대체로 나빠졌다'와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한국 51.4%, 일본 57.2%로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42.6%, 일본의 32.7%가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답했는데, 이는 악화된 한일관계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11] 현재의 한일관계 ('1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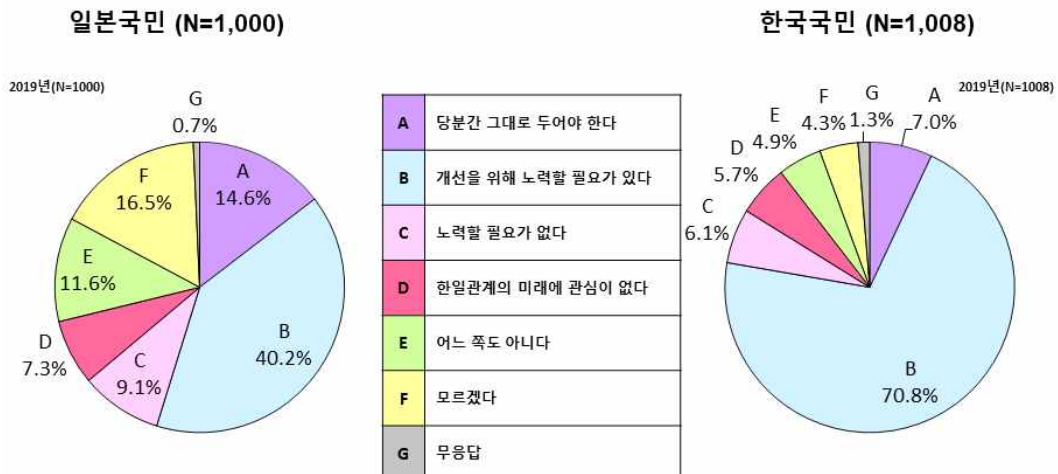


[그림 12] 한일관계에 대한 인상 변화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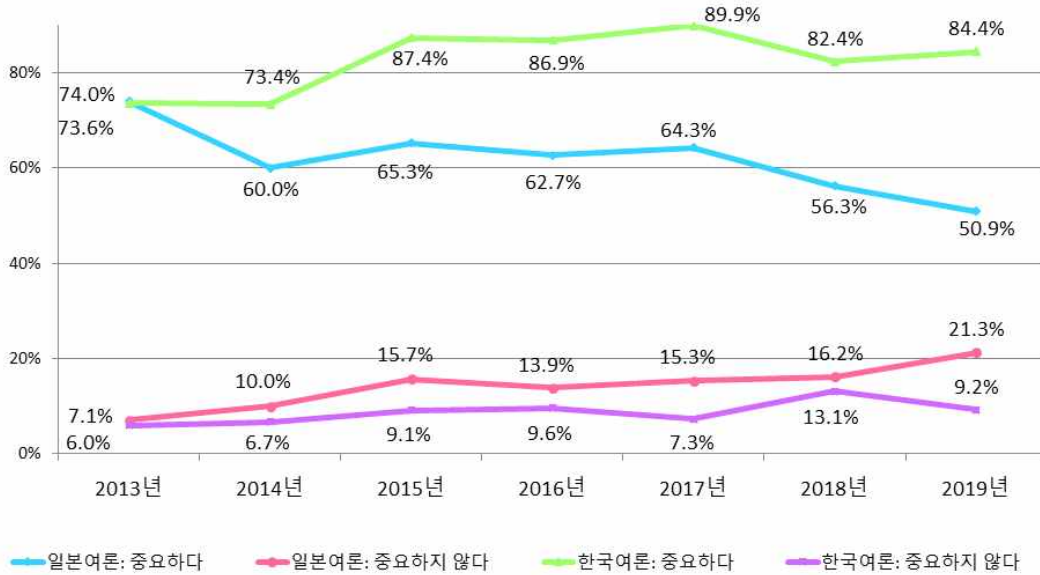


현 한일관계에 있어서 양국 모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중요성과 개선 의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84.4%, 일본의 50.9%가 한일관계는 중요하다고 답했고,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9.2%, 21.3%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의 70.8%, 일본 국민의 40.2%가 한일 관계 회복에 있어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한일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더욱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반대로 가는 한국과 일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림 13] 한일 관계의 중요성 ('13~'19)



[그림 14] 한일 관계 회복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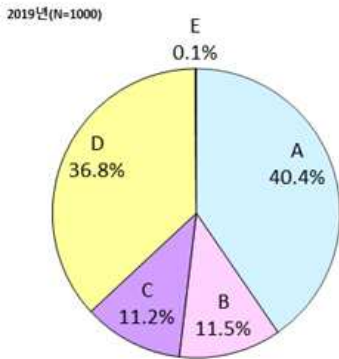
6. 한일협력에 대한 양국의 지지는 탄탄하다

-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 긍정적
- 한일 양국 경제협력의 필요성 재차 강조, 한국인의 한일FTA 지지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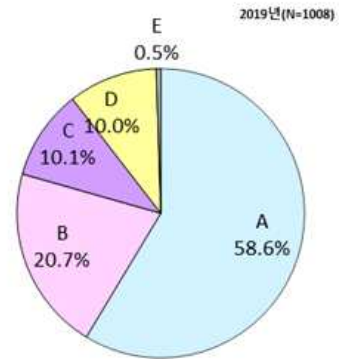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 국민은 한일협력에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한일 안보협력 추진에 대한 지지에 이어 양국 모두 미일/한미 동맹 및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국을 위한 한미, 미일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한국인 58.6%가 '미일동맹이 한국에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미일동맹이 한국에게 필요없다(20.7%)'고 답한 응답자보다 약 세 배 가량 높은 수치였다. 일본인 응답자 역시 한미동맹이 일본에게 필요하다는 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 없다'고 답한 11.5%에 비해 약 네 배 가량 높았다.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일본인 응답자는 36.8%로 동일한 답을 한 한국인(10.0%)보다 26.8% 포인트 많았다.

[그림 15] 자국을 위한 미일(한미)동맹 필요성

일본국민(N=1,000)



한국국민(N=1,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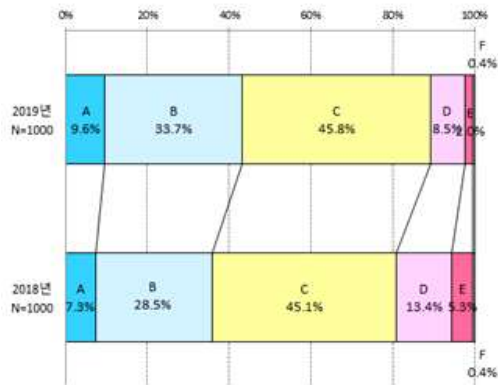


A	필요하다
B	필요 없다
C	미일(한미)동맹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
D	모르겠다
E	무응답

미일/한미동맹에 이어서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양국 모두 꾸준히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매우 및 일정 부분 찬성하는 한국인은 66.2%로, 작년에 비해 5.3%포인트 증가했고, 일본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43.3%로 작년 35.8%보다 7.5%포인트가 상승했다.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반대하는 일본인은 작년 18.7%에서 올해 10.5%로 약 8.2%포인트 감소했다.

[그림 16]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 의견

일본국민(N=1,000)



한국국민(N=1,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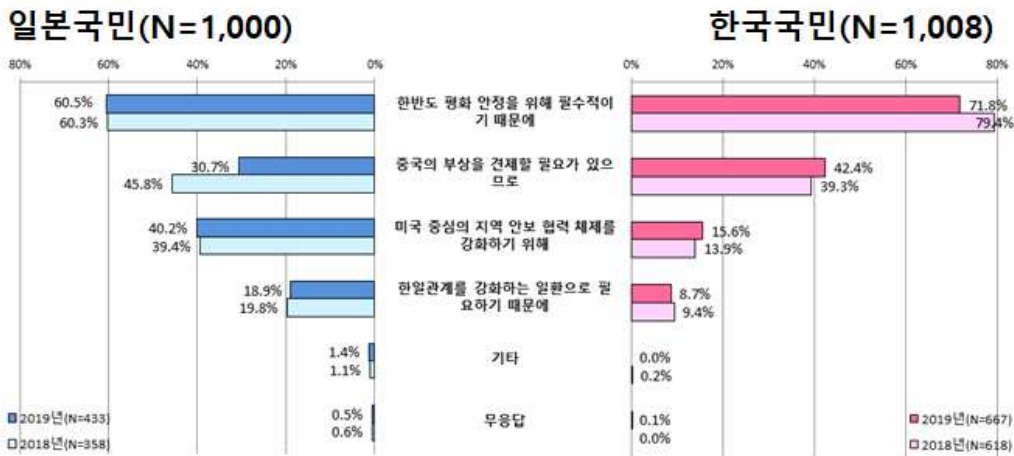


	A	B	C	D	E	F
	매우 그렇다	일정부분 그렇다	어느 쪽도 아니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무응답
19년	9.6%	33.7%	45.8%	8.5%	2.0%	0.4%
18년	7.3%	28.5%	45.1%	13.4%	5.3%	0.4%

	A	B	C	D	E	F
	매우 그렇다	일정부분 그렇다	어느 쪽도 아니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무응답
19년	16.1%	50.1%	25.0%	7.7%	0.7%	0.4%
18년	14.5%	46.4%	32.4%	5.9%	0.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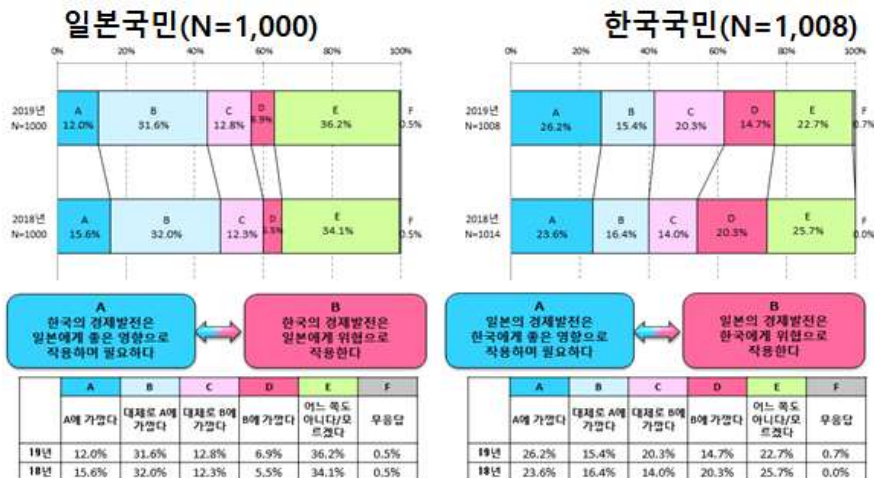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양국은 대체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 응답자의 71.8%와 일본의 60.5%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삼각 군사안보협력]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작년과 비교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므로'라고 평가한 일본인이 45.8%에서 30.7%로 15.1%포인트 감소하고, '미국 중심의 지역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를 답한 일본인이 39.4%에서 40.2%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중국 부상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므로'(42.4%)라고 답한 비율이 '미국 중심의 지역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15.6%)보다 높은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림 17]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 찬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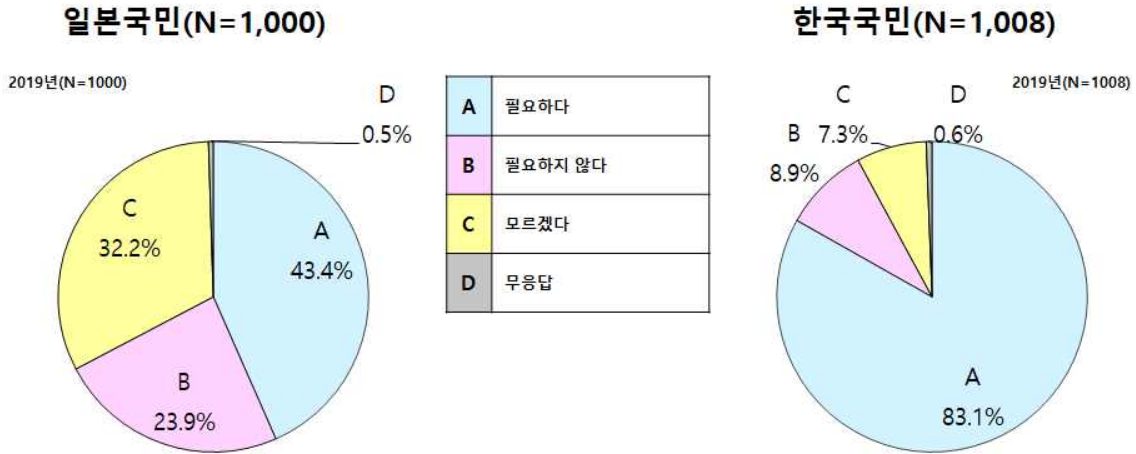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한국인 응답자는 83.1%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9%에 그쳤다. 반면, 일본의 경우 '필요하다'가 43.4%, '필요하지 않다'가 23.9%로 한국과 다소 상이한 평가를 내렸다.

[그림 18]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에 대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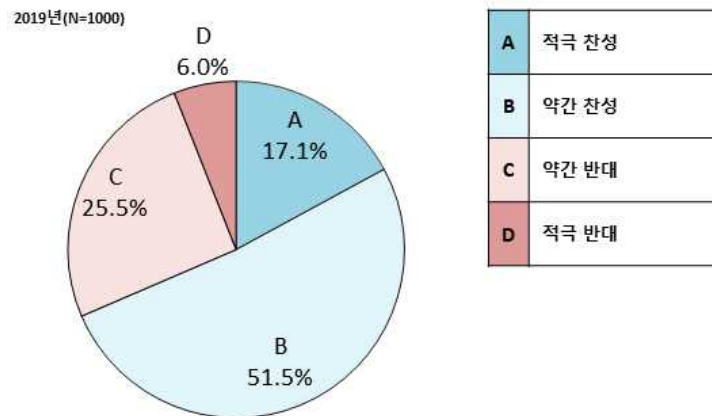


[그림 19]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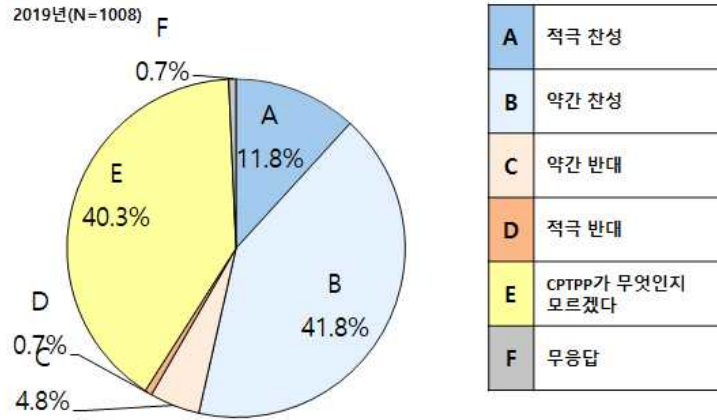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한국 응답자 중 찬성 비율(68.6%)이 반대 비율(31.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림 20]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인의 찬반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주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 가입에 대해서 한국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의 CPTPP 가입에 53.6%가 찬성한 반면, 오직 5.5%만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단, CPTPP를 모르는 한국인은 40.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역사문제와 달리 안보 및 경제협력 부분에서는 한일 양 국민의 탄탄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한 한국인의 찬반



7. 양국 정치와 정부에 대한 인상과 평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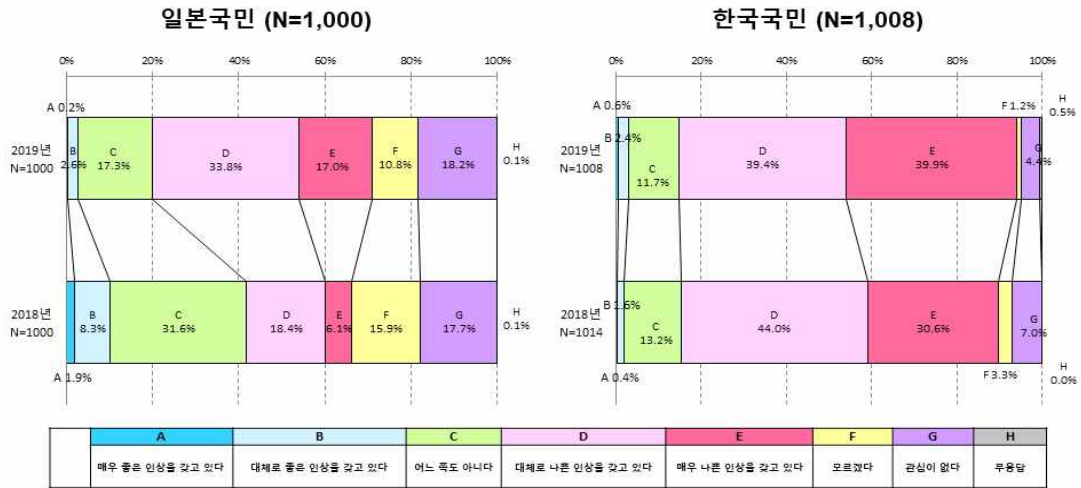
-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매우 부정적
- 상대국에 대한 자국 정부의 대응 평가도 대체로 부정적
- ‘잘 하고 있다’고 답한 한국 21.5%, 일본 26.1%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비해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상대국 정상(아베 신조 총리/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와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를 합친 긍정적 인상에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3.0%, 일본인 응답자는 2.8%였다. 이와 반대로 ‘대체로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와 ‘매우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를 합친 부정적 인상으로 답한 한국인은 79.3%, 일본인은 50.8%로, 양국 모두 상대국 정상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2018년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한국은 4.7%포인트, 일본은 26.3%포인트 증가하며 일본에서 한국 정상에 대한 인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년 간 상대국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인상 변화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상에 대해 일본 국민의 0.2%가 ‘좋아졌다’, 0.9%가 ‘대체로 좋아졌다’고 답하며, 인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밖에 없었다. 이와 반대로, ‘대체로 나빠졌다 (19.5%)’와 ‘나빠졌다 (31.8%)’를 합친 부정적 인식 변화는 총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인상에 대해 한국 국민의 0.2%가 ‘좋아졌다’, 1.8%가 ‘대체로 좋아졌다’고 답해

긍정적으로 인상이 변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대체로 나빠졌다 (33.8%), '나빠졌다 (34.1%)'를 합친 부정적 인식 변화는 총 67.9%로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상이 올 한해 더욱더 악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22]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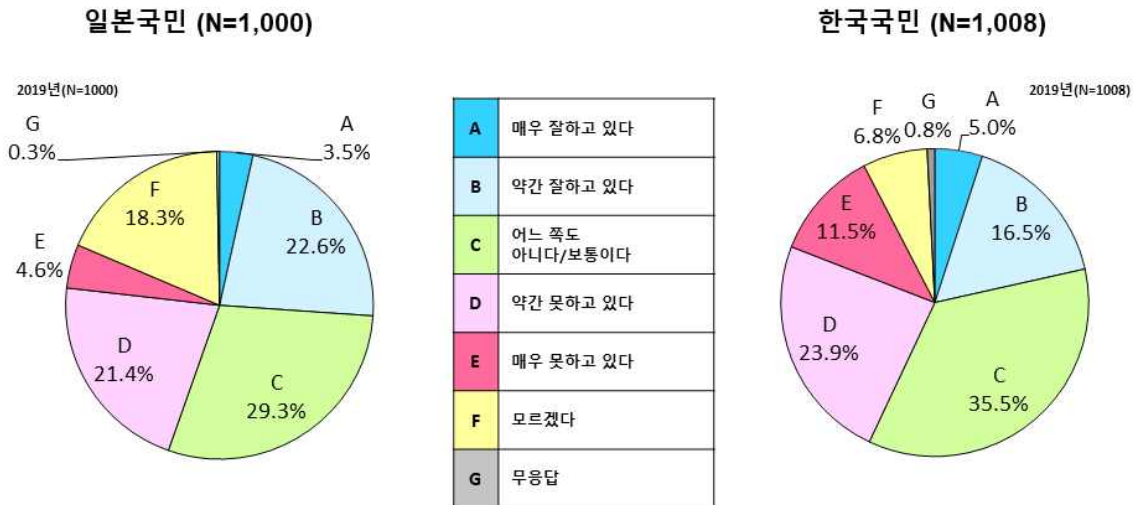
[그림 23] 상대국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인상 변화 ('18~'19)



한국인은 일본전체에 대해 31.7%의 호감도를 보이는 반면 일본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는 3% 즉, 1/10에 불과할 정도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정치가 문제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반국민의 역사인식에 있다가 보다 지도자의 역사인식에 대한 반대에 기인하며,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한국정부의 정책(예컨대 위안부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지연된 대응, 초계기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위화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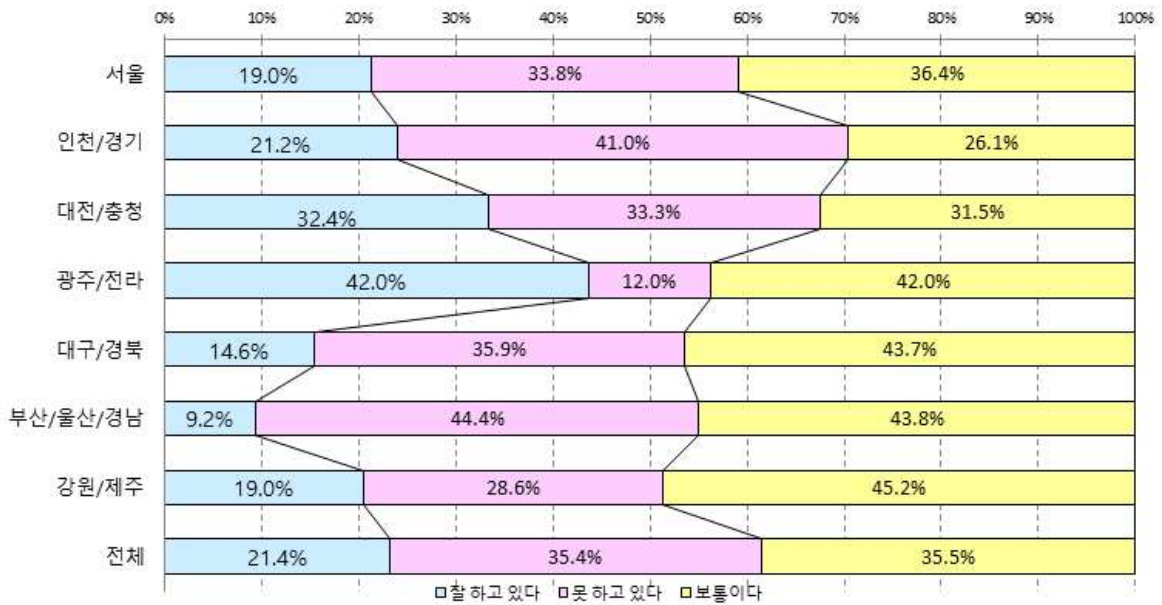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의 일본에 대한 대응과 태도'에 있어 한국은 21.5%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반면, 35.4%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일본의 경우,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대응과 태도'에 있어 '잘 하고 있다'는 26.1%, '보통이다'는 29.3%, '못 하고 있다'는 26.0%로 나타났다. 상대국에 대한 자국 정부의 대응과 태도에 있어 한국인의 5명 중 1명이, 일본인 4명 중 1명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상대국에 대한 자국 정부의 대응과 태도 평가



한편,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에 있어 타 지역과 다소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21.4%가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오직 9.2%로, 유일하게 10% 미만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못 하고 있다'고 응답한 전국 비율이 35.4%인 것에 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44.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역에 따라서도 현 한일관계에 관한 인식과 평가가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 지역별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태도 평가



8. 북한 비핵화를 보는 한일 양국의 인식은 수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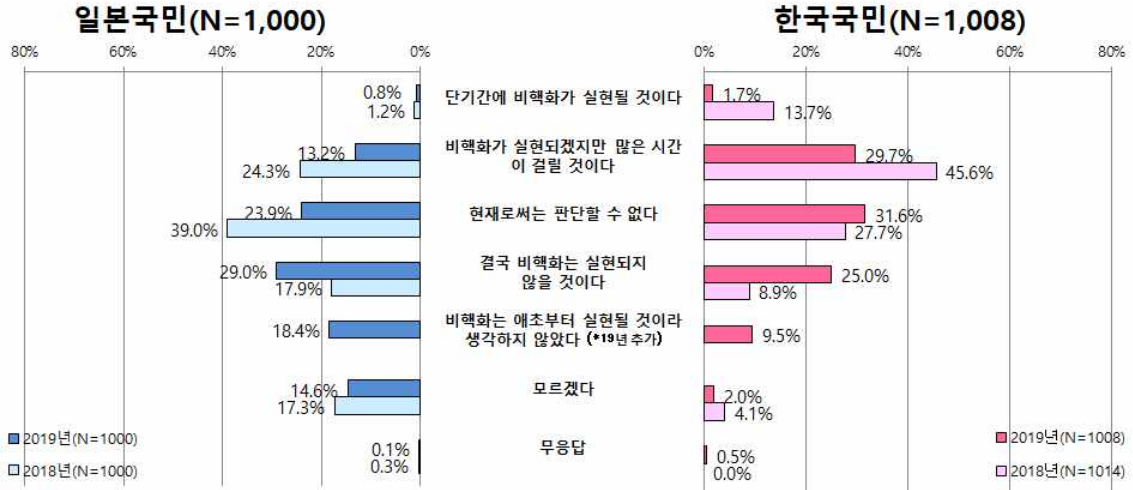
•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의 북한 비핵화 인식 일본과 수렴

-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18년 59.3% → 19년 31.4%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인의 북한 비핵화 인식은 다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작년 59.3%에서 무려 27.9포인트 감소한 31.4%에 머물렀다. 이 중 '단기간에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는 응답자는 1.7%, '비핵화가 실현되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9.7%였다. 반면, '결국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해 8.9%에서 2019년 25.0%로 증가했다. 일본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평가한 응답률은 감소하고, '결국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가 29.0%로 작년에 비해 11.1%포인트가 증가했다. 더불어, 금년 추가된 선택지인 '비핵화는 애초부터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답한 일본인 역시 18.4%로 비교적 높았다.

이렇듯, 장기간 비핵화 실현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16.5%포인트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다소 긍정적이지만, 양국 모두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과 '결국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비슷한 분포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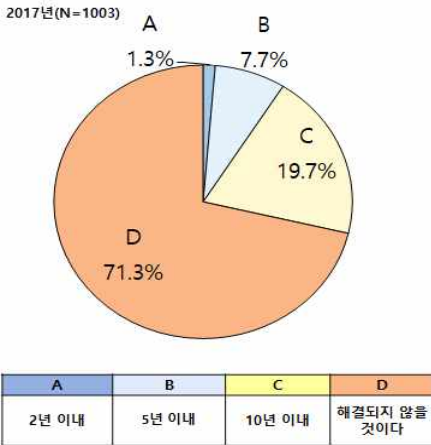
[그림 26]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201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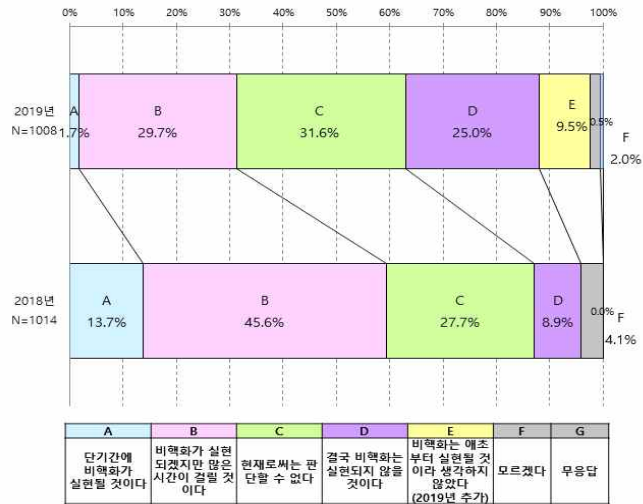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해 2018년 잠시 낙관적이었다가 올해 다시 부정적 방향으로 전환한 한국인의 태도는 주목할 만한 점이다. 2018년에 앞서 2017년에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 시기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무려 71.3%였으며, 이는 '2년 이내(1.3%)' 및 '5년 이내(7.7%)'에 대한 응답률을 포함하여 단기간에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평가한 한국인 9.0%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 조사에서 '단기간에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가 13.7%, '비핵화가 실현되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가 45.6%로 한반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급격히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올해 '단기간에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는 12.0%포인트, '비핵화가 실현되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는 15.9%포인트 하락했고, '결국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가 16.1%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한 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2019년 새로 추가된 선택지인 '비핵화는 애초부터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가 9.5%로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꽤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7] 북핵문제 해결 시기(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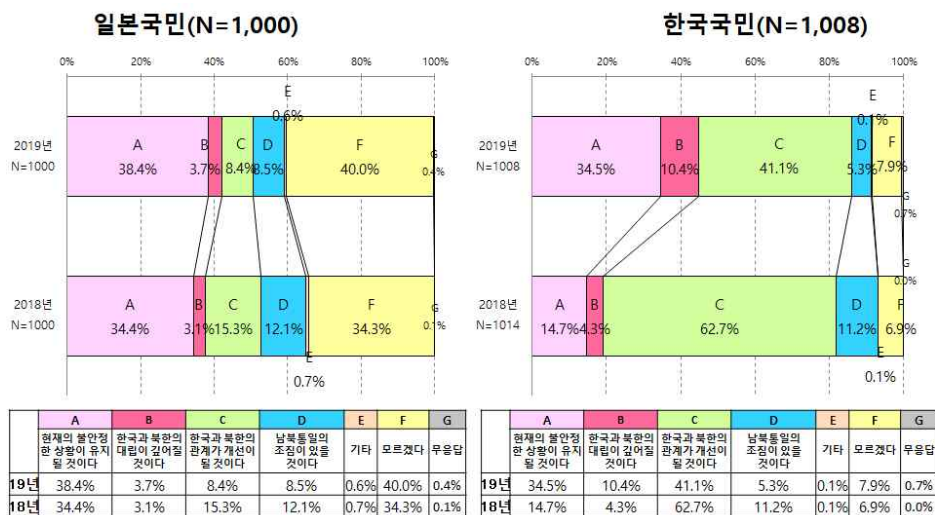


[그림 28] 한국인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 평가(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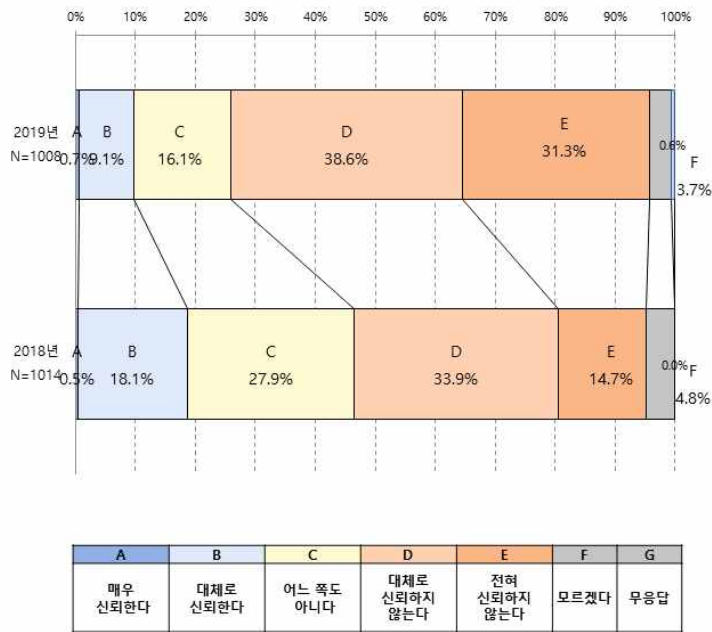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10년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한국인의 인식은 한 해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답한 한국인은 2018년 62.7%에 비해 21.6%포인트 감소하여 2019년 41.1%였으며, '남북통일의 조짐이 있을 것이다' 역시 작년에 비해 5.9%포인트 가량 낮은 5.3%에 머물렀다. 반면,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한국인은 2018년 14.7%에 비해 19.8%포인트가 상승하여 2019년 34.5%였다. 일본 또한 동일한 답을 한 응답자 비율이 작년보다 4%포인트 상승하여 38.4%였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이 될 것이다' 및 '남북통일의 조짐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일본인 응답률 또한 감소하며 한국과 일본은 비핵화 인식에 대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그림 29] 10년 이후 한반도 정세(201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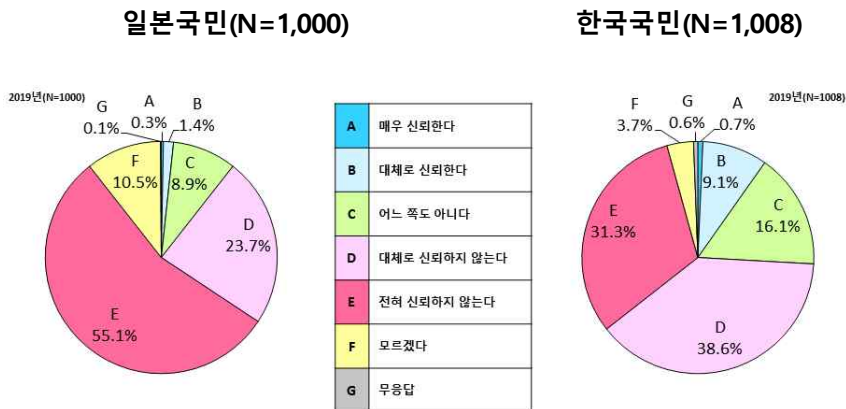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고 답한 한국인은 2018년 18.6%에서 2019년 9.8%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2018년 48.6%에서 2019년 69.9%로 증가했다. 한국인의 김정은에 대한 비핵화 신뢰도가 재차 낮아지며 일본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신뢰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2019년 총 78.8%로 한국보다 8.9%포인트 높았으며 '신뢰한다'고 답한 일본인은 1.7%로 매우 낮았다.

[그림 30] 한국인의 김정은 비핵화 의지 신뢰도(2018-2019)



[그림 31] 김정은 비핵화 의지 신뢰도



9. 한국인의 대(對)중 인식은 지속적으로 악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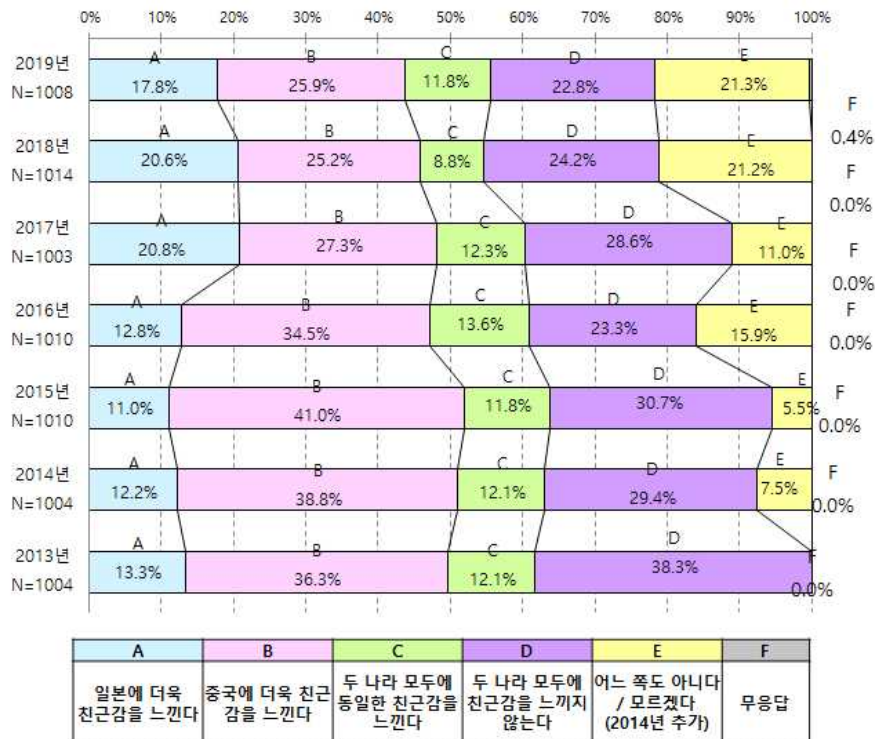
- **싸드 보복 이후 악화 경향**

- 중국에 대한 전체적 친근감 3년 만에 8.6% 감소 (2016년 34.5% → 19년 25.9%)
- 일본에 대한 전체적 친근감 3년 만에 5% 인상 (2016년 12.8% → 19년 17.8%)

- **한국의 젊은 세대 중국보다는 일본에게 더 친근감 느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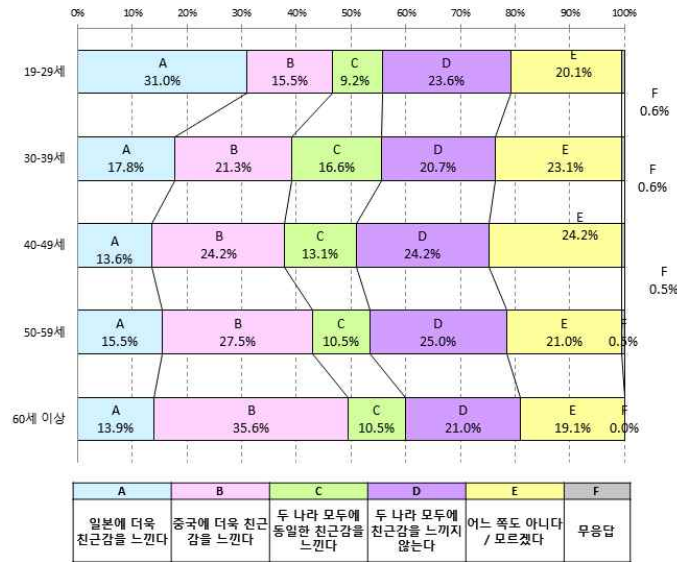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하고 있다. 일본보다 중국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는 한국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0-40%대를 유지했지만, 2019년에는 25.9%로 3년간 8.6%포인트가 감소했다. 반면, 중국보다 일본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는 한국인은 2016년 12.8%에서 2019년 17.8%로, 5%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에는 중국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는 한국인의 비율이 일본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보다 약 세배 가량 컸지만, 점차 동등해지고 있다.

[그림 32] 한국인의 일본 vs. 중국 친근감 비교(2013-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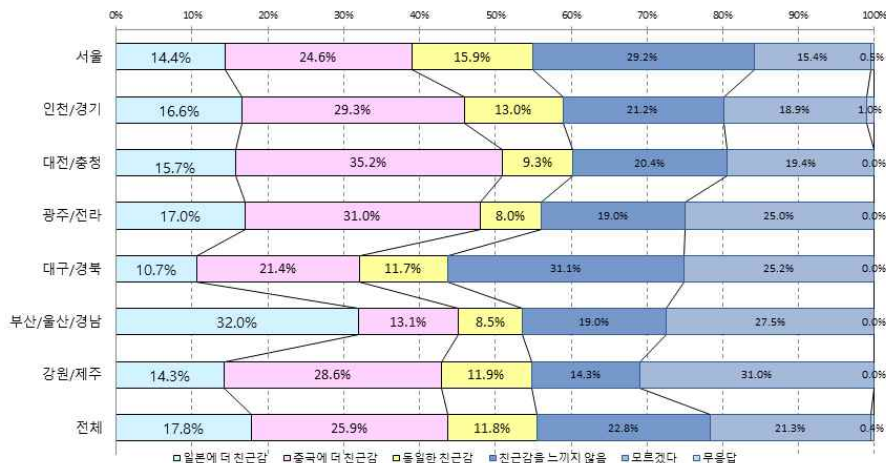
특히, 젊은 층일수록 중국보다 일본에 더 많은 친근감을 느끼는 현상을 볼 수 있다. 50대 한국인 응답자의 27.5%가 일본보다 중국을 선호한 반면, 20대는 15.5%였다. 반면, 중국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20대는 31%인데 반해, 50대는 15.5%로 약 두 배가량 차이가 났다.

[그림 33] 한국인의 일본 vs. 중국 친근감 비교(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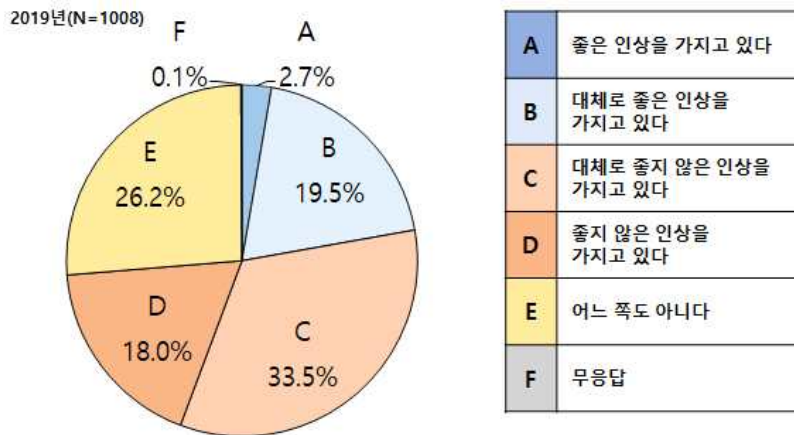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지역 또한 타 지역과 다소 상이한 의견을 보였다. 경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보다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경남 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32.0%가 중국보다 일본에, 13.1%가 일본보다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하며 상대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지역에 따른 중국과 일본에 대한 친근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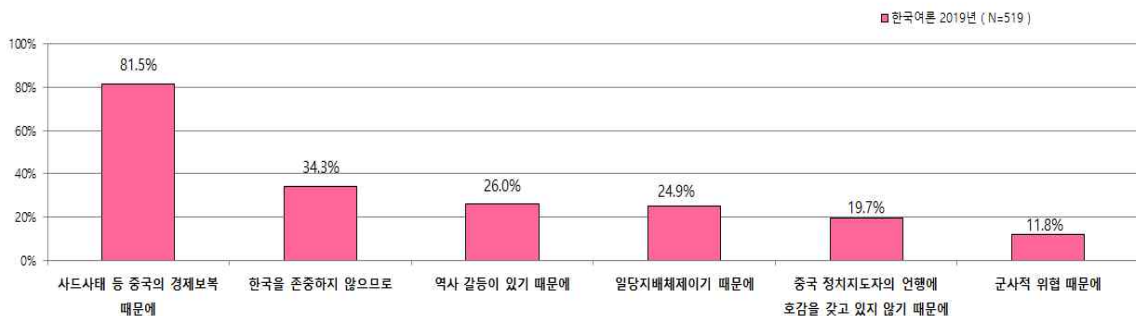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상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의 총 51.5%가 중국에 대해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33.5%)' 및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18.0%)'라고 평가했으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응답자 비율은 총 22.2%에 그쳤다.

[그림 35]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상(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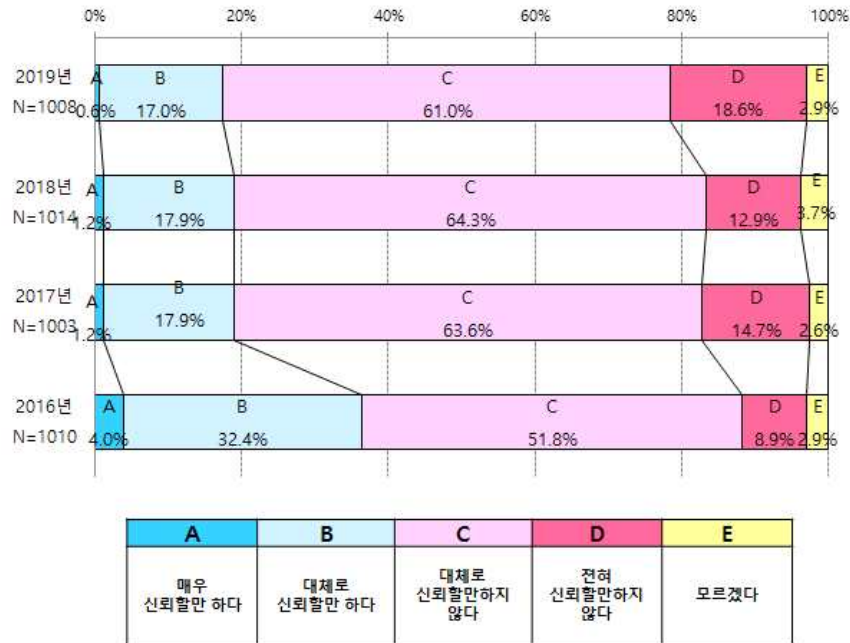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 중 '사드사태 등 중국의 경제보복 때문에'라고 응답한 한국인이 81.5%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을 존중하지 않으므로'라고 평가한 응답률이 34.3%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36]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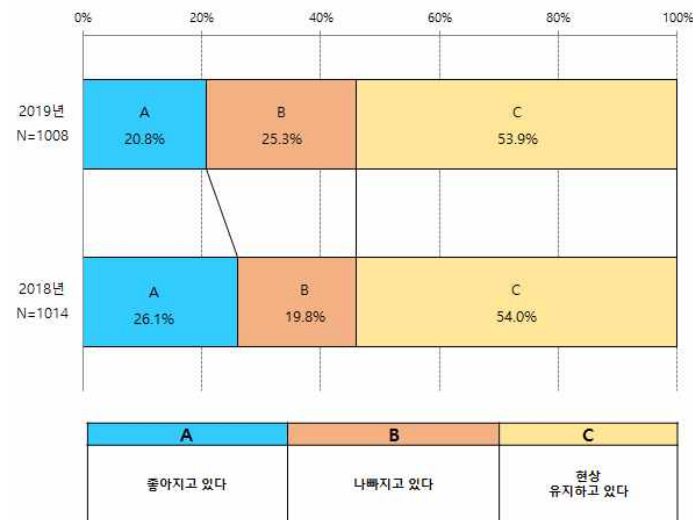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 역시 2016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다. 2016년 중국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4.0%)' 및 '대체로 신뢰할 만 하다(32.4%)'라고 답한 한국인이 총 36.4%였던 반면, 2019년에는 17.6%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대체로 신뢰할 만 하지 않다'와 '전혀 신뢰할 만 하지 않다'를 합친 비율은 2016년 60.7%에서 2019년 79.6%로 18.9%포인트가 상승했다.

[그림 37]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한 입장(2016-2019)



작년보다 한중관계가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한국인 비율 또한 상승했다. 2018년 한중관계가 '나빠지고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19.8%였던 반면에 2019년은 5.5%포인트 상승하여 25.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좋아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작년에 비해 5.3%포인트 하락하여 올해에는 20.8%에 그쳤다. 단, '현상 유지하고 있다'에 대한 답변은 2019년과 2018년 각각 53.9%와 54.0%로 거의 동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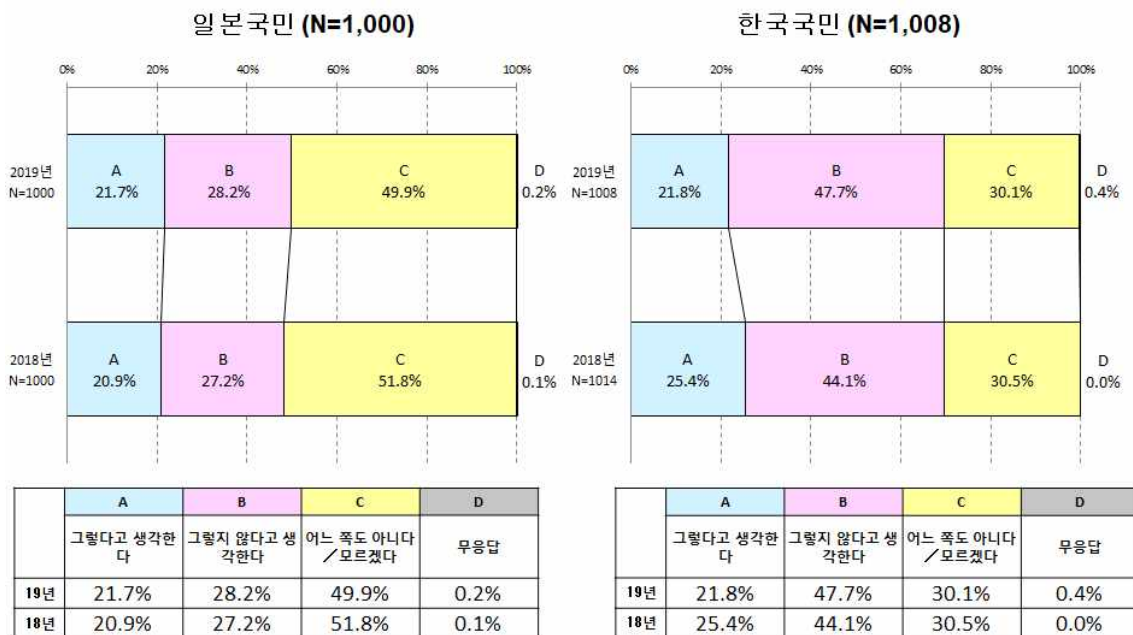
[그림 38] 한국인의 한중관계에 대한 입장(2018-2019)



10. 언론: 양국의 보도 및 인터넷 여론의 평가

자국 언론의 한일관계에 대한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47.7%의 한국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지난해보다 3.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일본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어느 쪽도 아니다/모르겠다(49.9%)'고 답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28.2%,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21.7%로, 한국과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그림 39] 언론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또한 '인터넷에서는 일본(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수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한국인(일본인)의 생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27.9%가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27.7%가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 23.7%가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며, 고루 분포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약 절반의 일본인은 '어느 쪽도 아니다/모르겠다(49.9%)'로 응답했다.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답한 일본인의 비율은 작년에 비해 4%포인트 증가한 14.6%,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는 20.5%,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13.7%였다.

[그림 40] 자국 인터넷 상의 상대국에 대한 의견

